

국문 요약

본 연구는 KOICA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관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협력적 성과관리(collaborative performance management)를 실시하기 위한 운영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적 성과관리 모형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KOICA 민관협력 사업의 성과관리에 적합한 방법론으로서 협력적 성과관리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흔히 이루어져왔던 사업종료 후 평가자들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가 아닌, 사업 시작 전부터 종료 이후의 전 단계에 걸쳐 사업의 이해관계자들이 동참할 수 있는 협력적 성과관리 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협력적 성과관리 방법의 개념과 운영절차를 디자인하고, 성과관리 파트너십의 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구체적으로 성과관리 협력사업 운영을 위하여 추진 단계 별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성과관리 컨설팅기관의 선정기준, (2) 성과관리 컨설팅기관의 선정방법 및 매칭 절차, (3) 협력적 성과관리를 위한 실천적 방안, (4) 성과관리 컨설팅기관의 역할 및 업무범위, (5) 성과관리의 품질 확보 방안, (6) 성과관리 컨설팅 비용 책정기준, 그리고 (7) 측정지표 및 대표지표의 설정 등 성과관리 협력사업의 주요 아젠다에 관하여 KOICA의 실제적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성과관리 시 맺은 파트너십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시하고, 성과관리의 결과의 활용방안도 제안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간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던 성과관리에 관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이는 개발협력을 위한 성과관리 방법론의 특징과 연구의 빈틈(lacuna) 및 보완점을 발견하는데 유용하였다. 아울러, 협력적 성과관리의 개념, 절차, 구성요소, 도전과제 등을 문헌고찰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협력적 성과관리의 주요 개념틀(framework)을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협력적 성과관리에 있어 국제개발원조 사회에서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영국의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IFD) 및 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을 주요 벤치마킹 사례로 선정하여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과

관리 컨설팅 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성과관리 품질 확보방안, 성과관리 결과 확산 방안, 성과지표 등을 파악하였다. 이상으로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성과관리 협력사업의 운영프레임워크 도출을 위해 유관 기관들과의 워크숍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관리 협력사업의 실행 틀을 확정하였다.

연구 결과, 협력적 성과관리의 실질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관리 컨설팅기관의 선정기준, 선정방법과 절차, 역할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DFID와 ADB 사례, 그리고 본 연구팀의 “친환경 적정기술과 사회적기업 모델을 통한 몽골 에너지 빈곤층의 난방효율 개선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사업 수행의 경험에 비추어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보다 효과적으로 양질의 성과관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역평가와 같은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셋째, DFID와 ADB에서 성과관리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지표 및 KOICA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지표들에 관해 고찰하고 향후 바람직한 지표 설정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이자 기여점은 사업수행기관과 성과관리 컨설팅기관이 협력적으로 성과관리 사업을 수행할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실질적 적용 방안을 제시한 데에 있다.

성과관리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컨설팅기관에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건이 핵심적으로 요청된다. 하나는 국별·지역 전문성을 비롯하여 성과관리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성과관리에 관한 전문성’이고, 다른 하나는 ‘협력에 대한 의지와 소통의 역량’이다. 컨설팅 기관이 성과관리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뛰어난 역량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자료와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실현가능하고도 적합한 대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 점에서 사업수행기관의 노하우와 역량이 성과관리에 충분히 접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컨설팅기관이 사업수행기관을 존중하는 가운데 협력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와 긴밀한 소통을 위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진작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역시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협력적 성과관리를 위한 실천적 방안들이 향후 성과관리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고 개발 협력 생태계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